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 교회소식

◆ 모임

1.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연극부 모임 / 7월 23일(주일) 오전 10시 606호

◆ 알림

1. 세례식 신청 - 금년도 네 번째 세례식인 8월 세례(세례, 입교, 개종, 유아세례)식이 8월 20일(주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세례 청원서 작성 및 신청 기간: 7/9-23

\*세례교육: 4주 교육(7/23, 7/30, 8/6, 8/13) 낮 12시 20분 609호

\*세례문답: 8월 13일(주일) 오후 1시 30분 609호

\*신청접수처 : 교육부서 및 교회 사무국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9시-17시30분	403호	유아부	11시-12시10분	706호
유치부	11시-12시10분	702호	유년부	11시-12시10분	701호
초등부	11시-12시10분	601호	중등부	9시-10시	501호
고등부	9시-10시20분	101호	청년부	15시30분-17시	601호
신혼가정부	12시30분-14시	606호	사랑부	10시30분-11시30분	603호
영어성경부	10시10분-11시	802호	소망부	10시10분-11시	102호
신앙강좌부	12시15분-12시55분	802호	새가족부	10시10분-14시	602호
세례교육부	12시10분	609호			

### 우리의 비전 (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전도사 박미라 최중국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선교사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해(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중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스펠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토,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뵤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위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

■ 이사야 41:8-16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의 저자 Scott Sauls은 모든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들은 우연히 혹은 저절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라고 역설합니다. 이 사실은 욥, 다윗, 모세, 야곱, 라합, 고멜, 엘리야 등 성경 인물에게서도 확인됩니다. 그런데 고통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그들이 붙들었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는 단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십니다.

1.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본문 사41: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힘들게 만든 것은 신앙적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는 두려움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종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십니다. 이런 명칭들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망해 소망이 끊어진 민족이 되었을 때 이런 호칭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내가 절대로 너를 싫어하거나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자기 진심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나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 된 것이 아닌 가라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도 우리를 싫어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나를 싫어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땅 끝에서 너를 붙들고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은 땅의 끝에 거대한 낭떠러지가 있고 그곳에서 떨어지면 그곳이 음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 끝에서 있다’는 말로 자기 위험성을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땅 끝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땅 끝의 위험한 자리에서 붙들어 주신다면 무엇이 두렵고 염려되었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십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땅이 꺼진 듯이 한 숨 쉬 이유도 없고 세상이 무너진 듯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시험을 당할 지라도 이길 힘과 피할 길을 주시고 앞길 가로막는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시든지 물 위를 걷게 하시든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3. 궁극의 은혜

하나님께서 11절, 12절에 그들에게 패배와 고통과 수치를 안겼던 모든 사람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것같이 사라지고 역사 무대에서 흔적도 없이 소멸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BC536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끄는 군대가 강력한 제국 바벨론을 격퇴하고 이때 사라진 바벨론 제국은 다시는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41:4절은 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소개합니다. 14절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 나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땅, 자기 나라도 지키지 못했고 자유와 권리도 모두 상실한 절대 무능의 존재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해방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리고 외면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붙든다, 지키고 돌볼 것이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시 간	인 도	기 도
I 오전 9시	김익환 목사	서은석 장로	III 오후 2시	현종필 목사	서은석 장로
II 오전 11시	장석남 목사	유충기 장로			

입례송 .....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	시 104:1...	인 도 자
* 찬 송 .....	14(1, 4절)...	* 신앙고백 .....		다 함 계
* 경배와 찬양 .....		기 도 .....		찬 양 팀
* 신양고백 .....		환영과 축복 .....		찬 양 팀
* 성시 교육 .....	45(시 103)...	교회 소식 .....		인 도 자
* 송 영 .....	4 .....	성경 봉독 .....	사 41:8-16...	말 은 이
기 도 .....		찬 양 .....		찬 양 대
찬 송 .....	446...	설 교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손달익 목사
성경 봉독 .....	사 41:8-16...	결단의 기도 .....		다 함 계
성도의 교제 .....		봉 헌 .....		다 함 계
봉헌 .....		* 봉헌기도 .....		설 교 자
* 봉헌송 .....	634...	* 파 송 .....		찬 양 팀
* 봉헌기도 .....		* 축 도 .....		설 교 자
찬 양 .....		* 후 주 .....		찬 양 팀
새가족 환영 .....				
설 교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 찬 송 .....	545...			
* 축 도 .....				
* 주기도송 .....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전지희	김진이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최유현	차주연	조현경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이주희	윤주일	3부 예배 신디시스트	이요한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불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사 41:9)		
수요 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금주의 성구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조현경				

## 찬 양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오후 4시30분	전재홍 목사	김영선 집사

목 도 .....		다 함 계
성 시 .....	시 20:1-3 .....	인 도 자
찬 송 .....	70 .....	다 함 계
기 도 .....		말 은 이
찬 송 .....	264 .....	다 함 계
성 경 .....	벤전 1:18-19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보배로운 피로 된 것” ...		전재홍 목사
* 찬 송 .....	265 .....	다 함 계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함 계

## 수 요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I 오전 11시	현종필 목사	송재월 권사
II 오후 7시	현종필 목사	박은영 권사

성 경 .....	왕하 3:12-27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모압의 착각” .....	손달익 목사

###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박수강·김복희2·신아령  
설 교 ..... 손달익, 김익환 목사

### 금요기도회

교육부 연합수련회와 한마음축제  
행사로 인하여  
개인기도로 대체합니다.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